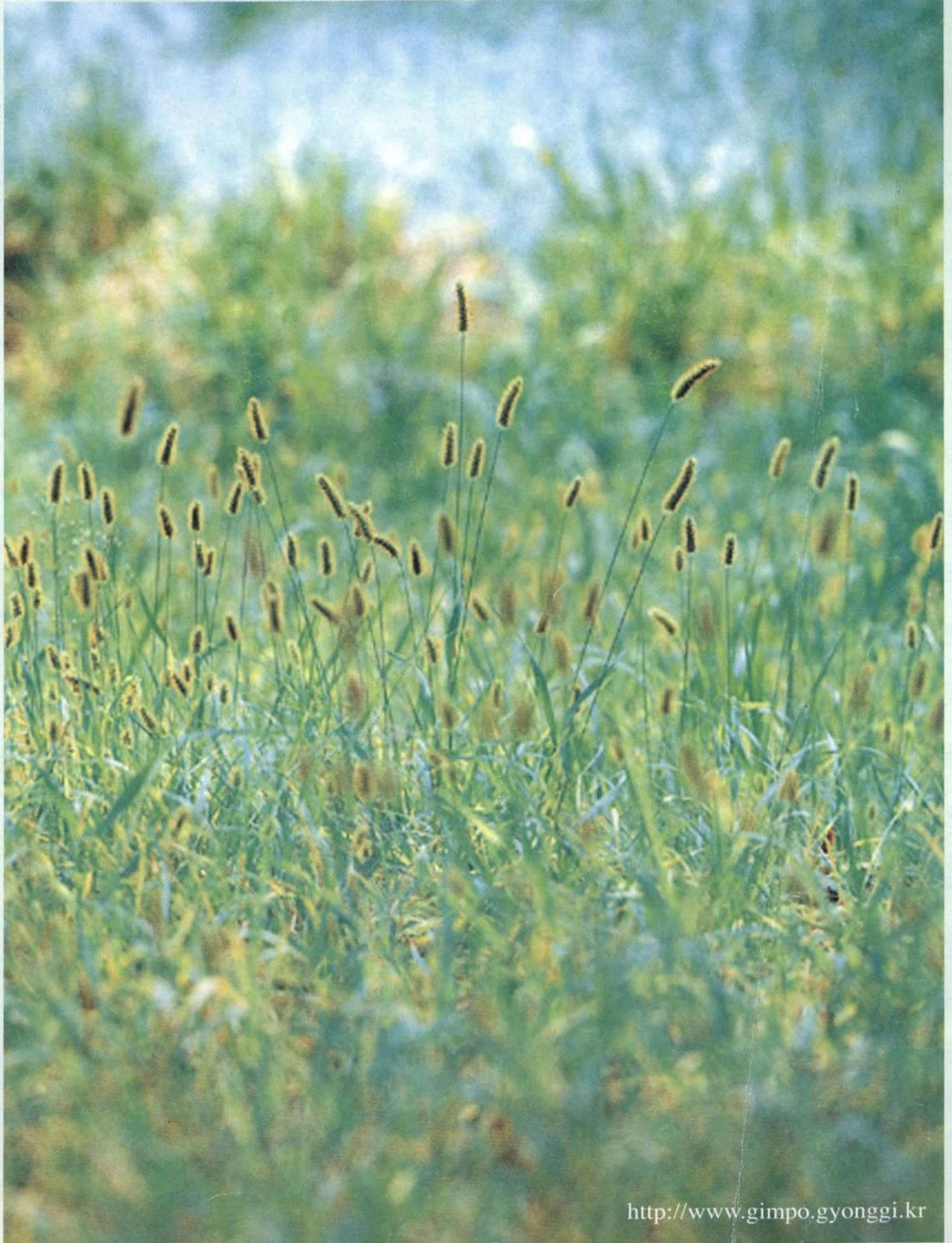


김·포·시·공·직·자·들·의·아·름·다·운·이·야·기

함 울 타 리

2001. 4월호

13





일·반·현·황

세대 및 인구				김포1	김포2	김포3	고촌		
2001. 1월		2001. 2월		45,145	12,840	38,739	12,597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양촌	통진	대곶	월곶	하성	
54,359	165,038	55,104	167,228	13,375	19,008	9,878	6,255	9,391	
농가 및 농가인구				자동차등록			금융기관		
농가	비율	인구	비율	승용		시중	지방	특수	
				승용	비율				
6,177	11%	23,938	14%	55,885	34,378	62%	12	7 0 5	
학 교 현 황									
학교수	학생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37	27,706	22	14,615	8	5,300	6	4,675	1	3,116
1999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2000년 조사분)									
사업체수	학생수	광업		제조업		기타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10,645	53,746	4	73	3,391	30,628	7,250	23,045		
공무원		행정구역				면적(km ²)			
정원	현원	법정리	통·리		반	답	비율		
			통	리					
589	590	65	93	205	1,249	276.53	88.78 32%		



학 울 타 리

학 울 타 리

Contents

2001 / 4 No.13

봄 처 녀

시인 이 은 상

봄 처녀 오시노나
새 풀웃을 입으셨네

하얀 구름 너울 쓰고
구슬신을 신으셨네

꽃다발 가슴에 안고
누굴 찾아 오시는고.

님 찾아 가는 길에
내 집 앞을 지나시나

이상도 하시오다
행여 내게 오시는가

수줍고 어리석은 양
나가 물어 볼까.

명시칼럼 / 오무순	4
간부공직자 논란 / 농정과장 조화연	6
초일류행정 현장스케치	8
내가 만일 시장이라면	11
'2000 공직자 및 부서간 경쟁력 평가	12
밀레니엄 특급부서 탐방 / 건설과	14
탐방 / 김포시 청소년 수련원	20
People Focus / 녹지과 이공희	22
그때 그 시절 / 빛바랜 사진첩에 읽힌 사연	24
이달의 베스트 드레서 / 김포3동장 임종광	26
이들 부부 공무원이 사는법	28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서사시 / 이영호 대곶면장	30
알아두면 편리한 정보의 바다	32
문화의 창 / 어머니의 위대함	36
윤선영의 영어한마디	38

(題號 : 통진면장 신명철, 표지디자인 : 사람과사람들 김영순)

봄이오는 길목에 서서



김포시 새마을 부녀회장
오 무 순

바 야흐로 봄이다. 폭설, 혹한, 황사로 이어진 지난 겨울은 경제한파와 맞물려 정말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다. 그렇지만 오묘한 자연의 순리는 어느덧 봄의 화신과 함께 봄기운이

온 삼라만상을 지배하는 윤희를 거듭하고 있다.

약수터 가는 길목의 장능산 중턱 산수유, 갈참나무에도 언제부터인가 이미 봄기운을 받아 물오름이 한창이다.

“복사꽃 피고, 복사꽃 지고, 뱀이 눈뜨고, 초록제비 묻혀오는 하늬바람 위에 혼령있는 하늘이여... 아무병도 없으면 가시내야 슬픈일 좀 있어야 겠다... (중략)

“얼마전 타개한 서정주님의 『봄날』이라는 시다. 뚜렷한 사계가 있고 춥고 덥고를 반복하는 삶이지만 이처럼 또다른 봄을 맞는 의미가 새로움은 유별난 겨울을 보낸 느낌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계절적 감각을 맞으며 올해 김포시의 행정이 매우 역동적일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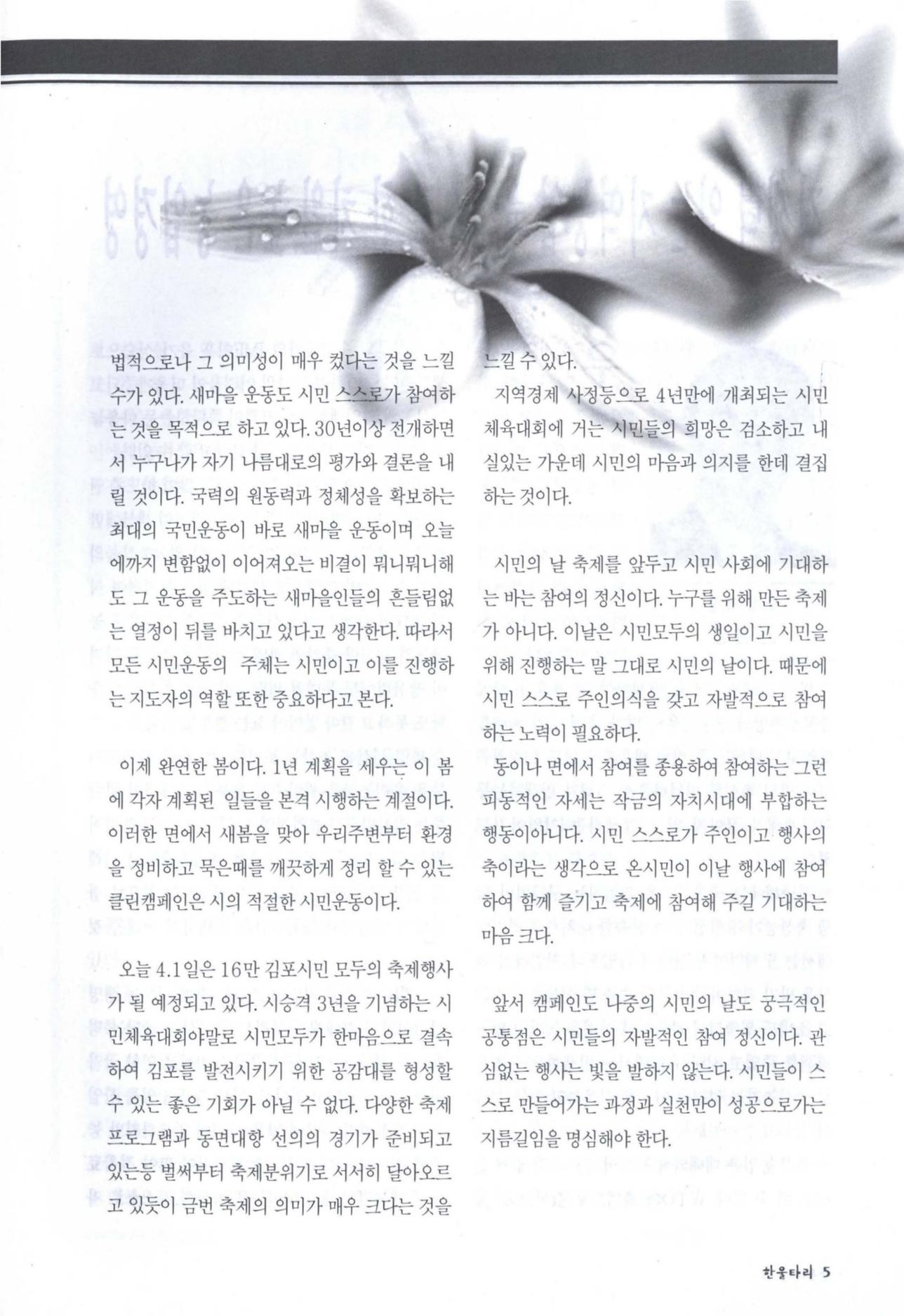
지난 10일 토요일.

새봄맞이 일제 환경캠페인이 시 관내에서 일제

히 개최됐고 3.12~17일까지 1주일을 환경정화의 날로 선정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년초부터 폭설로 얼룩진 도심 곳곳에 청소의 손길이 필요함이 예년과 다름이다. 각계각층에서 남녀노소할 것 없이 환경캠페인에 발벗고 참여하는 것을 보고 올해는 시민이 함께하는 내사랑 김포운동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예감이다.

캠페인!!!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움직이는 봉사손길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사는 이곳에 정이 있어 지역을 사랑하고 가꾸는 일에 솔선 참여하는 일이다. 이러한 일은 지위고하나 직업의 귀천없이 함께 참여하여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면 힘들여 참여를 종용한다거나 결과를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실 시민모두가 김포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정주의식과 애郷심을 고위키 위한 것이 『내사랑김포운동』이다. 관 위주에서 벗어나 민간중심의 각급단체와 자생조직이 함께 참여하여 98년부터 의욕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이러한 시민운동이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시민들의 무관심과 낮은 참여율에 기인된다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봄맞이 대대적인 환경캠페인은 시기적으로나 방



법적으로나 그 의미성이 매우 컸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새마을 운동도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0년이상 전개하면서 누구나가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와 결론을 내릴 것이다. 국력의 원동력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최대의 국민운동이 바로 새마을 운동이며 오늘에까지 변함없이 이어져오는 비결이 뭐니뭐니해도 그 운동을 주도하는 새마을인들의 흔들림없는 열정이 뒤를 바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모든 시민운동의 주체는 시민이고 이를 진행하는 지도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이제 완전한 봄이다. 1년 계획을 세우는 이 봄에 각자 계획된 일들을 본격 시행하는 계절이다. 이러한 면에서 새봄을 맞아 우리주변부터 환경을 정비하고 목은때를 깨끗하게 정리 할 수 있는 클린캠페인은 시의 적절한 시민운동이다.

오늘 4.1일은 16만 김포시민 모두의 축제행사가 될 예정되고 있다. 시승격 3년을 기념하는 시민체육대회야말로 시민모두가 한마음으로 결속하여 김포를 발전시키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과 동면대항 선의의 경기가 준비되고 있는등 벌써부터 축제분위기로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듯이 금번 축제의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지역경제 사정등으로 4년만에 개최되는 시민체육대회에 거는 시민들의 희망은 검소하고 내실있는 가운데 시민의 마음과 의지를 한데 결집하는 것이다.

시민의 날 축제를 앞두고 시민 사회에 기대하는 바는 참여의 정신이다. 누구를 위해 만든 축제가 아니다. 이날은 시민모두의 생일이고 시민을 위해 진행되는 말 그대로 시민의 날이다. 때문에 시민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이나 면에서 참여를 종용하여 참여하는 그런 피동적인 자세는 작금의 자치시대에 부합하는 행동이 아니다. 시민 스스로가 주인이고 행사의 축이라는 생각으로 온시민이 이날 행사에 참여하여 함께 즐기고 축제에 참여해 주길 기대하는 마음 크다.

앞서 캠페인도 나중의 시민의 날도 궁극적인 공통점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정신이다. 관심없는 행사는 빛을 발하지 않는다.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과 실천만이 성공으로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지역농업 육성으로 한 차원 높은 농업경영



농정 과장
조화연

우 리지역은 한강하류에 위치한 점토질로 형성된 지역으로 비옥하여 예로부터 벼농사 짓기에는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우리 나라에서 벼농사가 최초로 시작된 지역이다.

반면 재해도 수시로 발생하여 98년과 99년에 중북부지방의 집중호우로 벼가 물에 잠겨 피해를 입었고 작년에는 두 번의 태풍과 금년도 1, 2월에 30년만의 폭설로 비닐하우스 피해가 발생하는등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지난해에는 축산기반을 위협하는 구제역이 발생 축산농가와 행정, 군이 신속한 대처로 우리지역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축산물의 수출 및 이동을 금지하고 소비도 위축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었고 서구 유럽에서는 발생한 광우병으로 축산농가는 엄청난 타격에 신음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농업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처했다고 할 수 있다. WTO의 출범으로 값싸고 질 좋

은 농산물의 수입증가와 IMF이후 유가 상승으로 생산비가 증가하여 농가의 어려움이 더욱가증되고 농산물의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는등 마음놓고 농사를 짓는 시대는 지나 같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시절 농업은 무조건 생산을 많이 하도록 권장하였으며 농가에서도 소득과 직결되어 생산에만 전력을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값싼 외국농산물의 수입과 그동안 농업기반 시설에 집중 투자하여 시설 현대화 함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으로 농산물의 생산량 증가와 과잉 생산되어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도 못미쳐 피땀흘려 키운 농산물을 수확도 못하고 갈아 얻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과잉 생산된 농산물 토마토, 배, 계란, 돼지고기 등을 우리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팔아주는 임시방편식 농업경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수 없으므로 공급과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미래를 생각하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경쟁력이 뒤떨어져 농업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농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함께 이루는 생명 산업이며 인간에게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되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식량의 무기화로 인한 국가안보와도 직결되고 있다. 농업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농촌에 젊고 유능한 전문농업경영인이 많이 정착토록 후계농업인, 농업법인등을 육성하고 스스로 자



력 성장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농촌에 거주하는 출산여성 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 사업을 적극 지원 여성농업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지원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확대하고 벼 육묘공장등 농업시설의 현대화로 부족한 농촌을 해소토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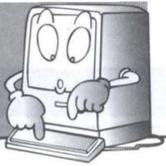
김포는 우리나라 최초의 벼 생산지로 입증된 지역으로 명성에 맞는 전국최초의 고품질 쌀을 생산키 위해 토양을 개량하고 우량종자를 보급하고 타 지역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보증 및 소포장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또한 김포쌀밥집 운영, 대도시 시식회, 지하철 광고등 김포쌀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그 예날 임금님 진상에 오르던 명성을 되찾을수 있도록 농업인 및 모두가 맛 좋고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 되고 있다.

서울, 인천등 대도시와 인접한 지역특정성을 이용한 대량소비처에 배, 포도, 딸기, 토마토등 농산물을 다양화하여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는 농산물을 집중육성하여 지역농업을 활성화하고 농특산물의 브랜드화 및 품질보증제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주말

농원과 관광농원을 확대하고 또한 과수, 화훼, 채소농가에 시설비를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처하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소비자는 신선하고 값싼 농산물을 구입하고 생산자는 시중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의 규격포장화 및 물류표준화로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농가소득이 향상 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축산 또한 광우병과 구제역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여 육질이 좋은 쇠고기 생산을 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돼지모돈 갱신으로 수출규격돈을 생산 축산물 수출로 농가소득이 증대 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며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분뇨처리시설, 돈사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친환경 축산농가를 육성하여야 하며, 유통지를 적극 활용하여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 추진하여 농가경영비를 경감토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대명포구에 제 2종어항 건설로 바다낚시등 관광어촌을 조성하고 하성면 전류리에는 물량장을 축조하는등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어린고기 황복, 참게등을 방류하여 잡는 어업에서 자원을 조성 관리하는 바다 목장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서비스마인드 고취를 위한 친절교육 실시- 전직원 대상으로

김포시가 지난 2월21부터 4일간 600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마인드 고취를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시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시민회관과 통진면회의실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초일류행정을 체질화하고 시민을 위한 절대 만족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식전환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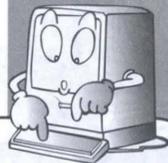
근무시간이후 부서단위 집합교육으로 실시된 이번교육은 이규수 자치행정국장의 '공직자 친절관련 특별교육'에 이어 부천 전화국 고객마케팅부 이미 강사를 초빙해 '전화응



대 및 고객만족'이라는 주제로 1시간30분동안 진행됐다.

한편 김포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온 초일류행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욱 친절한 김포시 공직자로 거듭 태어나겠다는 다짐의 자리가 되었다.

김포시는 그동안 전화친절도 평가, 허가과신설, 공직자 모두가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와 바림직한 민원자세등 서비스 이행 표준을 담은 행정서비스현장 제정, 시민주요사업장 방문평가, 책임행정구현을 위한 간부공직자 책임관리제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새로운 공직가치 창출을 위한 초일류행정 구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내 사랑 김포운동

내사랑 김포운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금년부터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시민이 참여하고 평가하는 범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1/4에는 전입세대를 위한 안내도우미 책자 제작, 배부와 3월말경엔 새봄맞이 깨끗한 거리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2/4분기에는 대규모 공동주택이 건립 입주하면서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토착민과 전입 주민간의 이질감 조성등 시민화합을 저해하는 우려가 있어 상호 인사를 통해 친목 및 시민화합을 위한 인사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관내 15개 하천중 굴포천, 계양천, 석모천 등에 대해 소하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아울러 3/4분기엔 행락지 교통 및 거리질서 캠페인 전개와 함께 내사랑 김포운동 '시민 자전거타기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4/4분기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공휴일 등 다수의 등산객이 등산하는 문수산, 장릉산 등 관내 주요 명산 입구에서 산불예방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새봄맞이 환경 대청결운동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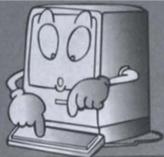
김포시는 지난 겨울 많은 폭설과 강추위의 여파로 곳곳에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어 해빙기를 맞아 모든 시민들이 생활주변부터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환경 대청결운동을 실시했다.



시 공무원을 비롯해 해병전우회, 자연보호협회 회원, 유관단체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새봄맞이 환경 대청결운동은 주요 도로변, 주택가, 하천등을 중점대상지로 실시됐다.



유정복 시장은 "겨우내내 쌓였던 쓰레기를 시민들과 함께 치우으로써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며 "시민 모두가 연중 지속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중교통 현장체험제 시행

김포시가 대중교통 현장체험의 날을 정하여 시민만족의 대중교통 문화 정착에 주력하고 있다.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 양질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으로 국·과장이 조를 이루어 평소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관내 주요노선 대중교통에 탑승하여 체험하게 된다.

현장체험에서는 ▶난폭운전과 임의 회차 및 노선 단축 운행 ▶차내 청결 및 안내부착물 상태 ▶정류소의 승·하차등 질서 문란 행위 ▶운전기사 불친절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시는 대중교통 현장체험을 통해 불성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지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제 13회 김포시민 자치대학 개강

새로운 지식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분야의 명사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매월 2회씩 운영하고 있는 시민자치대학강좌가 지난 3월15일 여성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13회째를 맞은 이날 시민자치대학 강좌는 300여명의 시민과 사회단체 임직원, 공무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천년을 사는 가치관과 인생관 정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박완일 한국사회교육연구회 회장을 모시고 강연이 진행됐다.

이날 강연에서 박완일 회장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스스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고 의연해야 한다"며 다양하고 급변해가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의식의 혁명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료 돕기 나서...

고촌면은 지난 폭설 때 업무 수행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재활용수집소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딱한 사정을 듣고 면장을 비롯해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40만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모금된 성금은 8일 고려병원에 입원중인 정순진씨 가족에게 전달하고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원했다.

목요일에... 공직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월 시민자치대학 전여옥 교수

제 14회 2001. 4. 19(목) 09:30-11:30

여성회관 대강당

田麗玉(전여옥) 인류사회 대표, 방송인

- ▲ 1959年 生 ▲ 이화여대 사회학과 졸 ▲ 서강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 ▲ 이화여대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현) ▲ '81-'90 KBS 기자 (사회, 문화, 외신부, 아침뉴스 앵커를 거쳐 도쿄 특파원 역임) ▲ '93 마이티비(MYTV)제작부 주간 ▲ '94 YWN-International 뉴스주간 겸 리마주 방송프로덕션 대표 ▲ '96 한국방송공사



라디오 생방송 오늘 진행 ▲ '97 한국방송공사 다규 법정추적 진행 ▲ 2000 인류사회 대표(현)

<著> 일본은 없다1·2, 여성이여 테러리스트가 되라, 여성이여 느껴라 탐험하라 외

※ 첫째주 목요일이 식목일인 4월5일은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일 시장이라면



우리는 항상 내자리가 아닌 미지의 세계를 상상하곤 합니다. 가끔씩 일상에서 벗어나, 현재 내자리보다 더 높은자리, 출세나 성공을 하는 상상을 하고, 또 상상을 위해 노력하고 발전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만일 시장이라면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채영 / codud@kg21.net)



시민을 위한 공무원에 의한
기본을 지키는 행정

하성면 지방농업주사보 여민구



청내 노래방을 설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짜로 스트레스를 풀수 있으니까요

시민과 장화경



청내 흡연을 실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옆사람도 생각해 주어야지요.

도시개발과 지방행정서기보 오은화



휴일에는 최대한 쉬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중요하니까요.

상수도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최신



신문고를 설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사회에서 서로의 애로사항을 나누자는 뜻에서요.

양촌면 지방행정서기보 임경준



직원의 복지를 위해 휴양소를 설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쉬어야하니까요.

대곶면 지방행정주사보 권혁경



민원과 교환근무를 실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이해관계의 폭을 좁여야 하니까요.

건축과 지방건축 8급 유정수



2000년도 공직자 및 부서간 경쟁력 평가

우리시가 민선 제2기 출범과 함께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있다면 당연히 '초일류 행정'을 들 수 있다. 이는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절대적으로 앞서 갈 수 있는 고품질의 행정을 구현하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케 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선진 지방자치체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박정우 / pjw1012@kg21.net)

'초일류 행정'을 이룩해 나가기 위하여 '98년도부터 우리시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바로 "공직자 개인 및 부서간 경쟁력 평가"라 할 수 있다.

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공직자 모두가 맡은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프로정신을 갖게 함은 물론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전화친절도 / 시책추진 / 창의적 업무추진 / 정보화 추진 / 문서관리 및 근무환경개선 / 공직기강 확립 / 건전재정 운영 / 부서간 협력체계 / 행정규제 정비 / 시민만족도 평가** 등 10개 항목에 50개 지표를 설정하고 총 9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년간 관련부서 및 민간부문에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지난달 제 3차년도(2000년) 실시했던 경쟁력 평가 결과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시상결과 최우수 부서에는 '건설과'와 '김포 3동'이 영예를 차지하였고, '전화친절도'에서는 여성회관 박경애씨가 '행정관찰제 추진' 우수공무원은 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 황정인씨, '창안시책' 우수공무원은 세정과 장양현팀장이 영예의 수상자가 되었다.

부서간 경쟁력평가에 있어 부서간 순위에 차등을 보이는 평가항목들을 분석해 보면 초일류 행정추진을 위

한 각종 시책들을 효율적인 추진하고 가시적 성과를 제시했던 부서와, 또한 부서 나름대로 창의적인 특수·우수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 부서, 전화친절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부서, 시민만족도 모니터링 평가에서 상위점수를 받았던 부서가 특히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부서별 종합점수를 분석해 보면 상위부서와 하위부서가 근소한 점수차이를 보이고 있어 2001년도 '부서간 경쟁력평가' 시에서는 평가항목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조금만 노력하면 어느 부서이든 '초일류 부서'로서 큰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번 김포시 부서간 경쟁력평가에서 수상자들에 대해 수상소감과 비결에 대해 물어 보았다.

여성회관 박경애 [전화친절도 평가 우수공무원]

저는 천성적으로 목소리가 크고 상냥한 어투도 아니어서 전화친절도 평가에서는 항상 불리하다고 생각했는데 '2000경쟁력평가 결과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무척 감사드립니다. 더욱 잘하라는 의미로 생각하

성공



했습니다. 비결이라는 것은 따로 없구요 그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성의껏 답변해 드린 것뿐입니다.

세정과 시세팀장 장양현

[창안시책 우수공무원]

= 부동산 경매관련 프로그램 자체제작

효율적 활용 =

누구든지 자신의 업무에 긍지를 갖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 방안을 생각하다보면 좋은 창안 시책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프로정신이 아닐런지요.....

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 황정인

[행정관찰제 추진 우수공무원]

= 행정관찰제 17건 추진 =

출·퇴근시 또는 출장시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부서에서 인력부족 등 여러 여건상 작은 사항까지 파악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조금씩만 서로 도와 준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일들이 시민들에게는 작은 기쁨과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 아닐런지요.....

'2000 경쟁력평가 결과

【우수부서 - 시청】

- 최우수 : 건설과
- 우수 : 지역경제과 · 여성회관
- 장려 : 공보담당관실 · 복지과

【우수부서 - 동·면】

- 최우수 : 김포 3동
- 우수 : 김포 2동 · 김포 1동
- 장려 : 고촌면 · 양촌면

【분야별(개인)】

- 전화친절도 평가 : 여성회관 박경애
- 창안시책 추진 : 세정과 장양현 시세팀장
- 행정관찰제 추진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황정인

【인센티브】

- 시장표창 및 시상금
 - 우수부서 : 최우수 100만원/우수 60만원/장려 40만원
 - 우수동면 : 최우수 100만원 (상사업비 2,000만원)
 - 우수 60만원 (상사업비 1,000만원)
- 포상휴가
 - 최우수 부서 및 동면 : 휴가 3일(전직원)
 - 우수 부서 및 동면 : 휴가 2일(전직원)
 - 장려 부서 및 동면 : 휴가 1일(전직원)

밀레니엄 특급부서 탐방? 건설과

- 부서 경쟁력 평가 최우수 -

『2000년도 부서별 경쟁력 평가에서 최우수부서의 명성에 걸맞게, 설해대책사업에서도 전직원이 밤잠을 지새우며 시민들의 발과 길이 되어 준 건설과 직원들은 조성신 건설과장과 하나된 조직력으로 앞으로 다가올 수방대책에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시민들의 재산보호에 전력투구 하는 모습이 너무나 든든합니다』 (유재욱/yoo2405@kg21.net)



◀ 조성신(건설과장)

김포시 토목지 공무원의 거목! 토목분야의 달인!
사석에선 직급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만행같이 대해주시는 건설과장님!
건설과 직원들은 과장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 김진억(건설행정팀장)

인상이 과묵하시다구요? 아니죠 얘기 한번 나누면 금방 부드러워 지는 건설도시국의
주무과 주무팀장님인 우리의 김진억팀장님!
전문건설업의 전문가가 다 되셨다는데 요즘은 술을 아끼신다구요?



◀ 황창하(행정6급)

정통 행정과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시는 우리국의 황주무님!
건설도시국을 김포시 최고의 초일류행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머리를 쥐어짜고 있을 황주무님! 한숨 좀 돌리게 쉬었다 하십시오.

▶ 전익홍(배수물관리)

건설과가 부서별경쟁력평가에서 1등을 하기 까지 제일 열심이였죠!
배수문 관리와 하천업무에 과 서무.....
오늘 할 일을 오늘 끝내지 않고선 퇴근도 하지 않는
정말 일에 있어서 푹소리 나는 초일류 일꾼이죠!



◀ 신창근(서무)

2001. 3. 3일자 인사발령이 있겠습니다.
지방토목서기보시보 신창근, 건설과 건설행정팀에 임함!.....
지켜봐 주십시오! * 신창원과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조성균(국공유재산관리)▶

너무 터프하다구요? 당연하죠 남잔데..(^^);

하지만 가정에선 한없이 부드러운 남편과 아빠가 됩니다.

P.S 김포시 국유재산은 제게 맡겨만 주십시오! 필승!



◀신선숙

언제나 맑고 활기찬 그녀! 어떠한 면에서도 빠지지 않는 건설도시국의 살림꾼!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 신선한 여자!

그녀 요즘 마라톤에 흠뻑 빠져 있다는데 시집은 언제나 같런지?



문제남(골재채취)▶

문제있는 사나이인가요? 전혀 문제없는 골재채취장의 사나이!
김포시 재정에 일익을 더하기 위하여 오늘도 모래와 자갈 열심히 팔겠습니다.



◀김세환(골재채취)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골재채취장의 사나이!

운전미숙의 덤프차량이 골재채취장 사무실을 덮었을 때 몸은 다쳤지만 침착한 모습으로
오히려 괜찮다며 상황처리를 하시던 우리의 김세환 주사님! 건강하세요!



고명순(골재채취)▶

항상 아이처럼 해맑게 웃는 모습이 참 매력적인 골재채취장의 사나이!
매서운 강바람도 이분의 미소 앞에선 고개를 숙이나 봅니다. 봄입니다 봄!봄!봄!



◀황명하(골재채취)

경영수익사업의 일익을 담당하는 골재채취장의 사나이!
건설행정팀 황창하 팀장의 친형님 되신다는데 김포시의 재정은
황가형제 두 손에 달려있는게 아닌지?



한규중(토지수용팀장)▶

물 밑듯 찾아오는 민원인도 두렵지 않습니다.
맡은 업무에 있어서는 모두 박사가 되어 완벽하게 처리하는
뛰어난 두뇌력으로 중무장되었기 때문이죠
오늘도 역시(?)납니다~~~~옹!





◀최경배(국·지방도 보상)

큰 키! 훗칠한 외모에서 느껴지듯 조용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국·지방도 보상도 깔끔하게!
노래솜씨 또한 가히 수준급이라고요?

▶이한기(도로보상)

얼마전 따끈따끈한 국가고시(?) 합격으로 요즘은 운전이 푸~욱! 빠지셨다고요?
끊이지 않는 도로보상에 잠시 커피한잔 할 시간도 없지만 고맙다는
민원인의 한마디에 피곤함이 싹 가신다는데,,,!
항상 웃는 얼굴이 정말 귀여운 남자죠!



◀노순호(재난관리팀장)

이분 앞에서 재난·재해를 논하지 마십시오!
재난관리팀장만 벌써 3번째 하고 계시는 재난관리계의 전설!
요즘은 시민휴식 공간을 위해 한차원 높은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에 매달리셨다고요!.

▶안승근(펌프장공사)

이분이 있었기에 작년 엄청난 수해로부터 우리 김포시가 온전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비가 좀 적당히만 왔으면...?



◀박건우(재난관리)

속이 팍 찬 남자 박건우! 일이면 일? 게임이면 게임?
어느것 하나 못하는게 없는 우리 김포시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맨입니다.

▶변상경(재해대책)

건설과의 또다른 터프남 변상경!
때론 구멍가게 아저씨처럼 넉넉한 마음의 그가 있기에 오늘도 김포시 펌프장은 "이상무".



◀서국원(펌프장관리)

항상 모든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재난관리팀의 멤버로서 손색이 없네요.
참! 4월이면 결혼을 한다는데 진짜 축하해요.
부럽습니다.



◀김종대(재난관리)

11시가 되면 어김없이 수화기를 들고 유관기관 및 동면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상황보고 체크를 하는 김종대씨! 동면사무소 주사님들 화재나 교통사고등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2119를 눌러 저를 찾아주세요! .

김영대(전기안전관리)▶

문화체육과의 김영대가 아닙니다.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설과에도 김영대가 있습니다. 굴포천 펌프장 전기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호남아지요.



최병훈(재난관리)▶

외소한 체격 어디에서 그런 카리스마가 나올까요? 일을 끝마치지 않은 상태에선 점심도 거르는 재난관리팀의 없어선 안될 존재, PC에 대해선 모르는게 없어요!



◀김한성(도시계획팀장)

도로계획에 있어서 명장인 김한성 팀장님! 얼굴은 껌둥이이지만 마음만은 하얀 인정이 넘치는 멋진사나이. 모든대화에 있어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처음대하는 사람은 당황하게 마련이죠!



이용훈(국·지방도)▶

독특한 유머와 겸손함, 강인한 추진력으로 사람을 끄는 매력의 소유자 건설분야의 해박한 지식으로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지만 가정에서 만큼은 자상한 두아이의 게임친구랍니다.



◀김재성(시·도사업)

대쪽보다 더 강한 성품을 가진 멋진 사나이!! 책임성이나 근면성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며 우리시 고촌~ 월곡간 도로가 이손에 달려 있소이다. 지켜봐 주세요.



이창훈(농어촌도로사업)▶

모든 분야에 능통하지만 잡귀에 대가! 하지만 약한 것이 한가지 있다면 술! 쥐약이 예요. 보약이 된다고 하니 조금씩이라도.....





◀김정구(시설팀장)

민원인의 해결사! 김포시 주민들의 손과 발이될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불편하신분은 언제든지 오세요 !.



신동진(도로유지보수)▶

탁월한 업무처리능력!
마음은 항상 이웃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업무추진 만큼은 날카로운 칼날 같습니다.



◀오현철(제한차량허가, 교량관리)

도로파손의 주범이되는 과적차량! 제게모두 신고해주세요
미래가밝은 김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흥수(사도설치, 도로점용)▶

고향이좋아 지역발전을 위해 김포시에 첫발을 들었습니다.
내집보다는 우리지역
김포시를 위하여 혼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근배(시설물 보수)

건설과의 1등공신! 파손된 도로와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는 몸을 사리지않고
솔선수범하는 멋쟁이랍니다.



임경오(수로반장)▶

우리반장님은 시민의 편안한 통행을 책임집니다.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품으로 모든 일은 이분 손이 닿으면 만사 OK!



◀박상연

항상웃음을 잃지 않으며 모든 일을 조용히 그리고 깨끗하게 처리하지요!



정하식▶

잠시라도 앉아 있기를 싫어하시는 분이랍니다. 또한 굶은일은 이분이 다 한답니다.



◀두양언▶

서민적인 정이 물씬 풍기는 참 일꾼으로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합니다.



◀황영선▶

건설과의 참 일꾼이지요!
아무리 힘든일도 웃으며 척척해내는 직원입니다.



◀문봉운▶

잘생긴 외모만큼이나 매사에 시원시원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입니다.



◀강용규▶

체격도 건장하지만 마음 씀씀이도 마냥 넓습니다.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가 믿음직스럽습니다.



이복인(제설차 기사)▶

제설작업시에는 없어서는 안될 귀하신 몸!(제설차 기사),
큰 체격에 어울리지 않게 항상 부지런 하답니다.



이순기▶

타고난 조용한 성품의 소유자이며,
우리과에서는 꼭 필요한 일꾼입니다.



박용학▶

내가 더부지런해야 동료들이 편하다는 진한 동료애를 간직한 분이며,
또한 동료들의 분위기 메이커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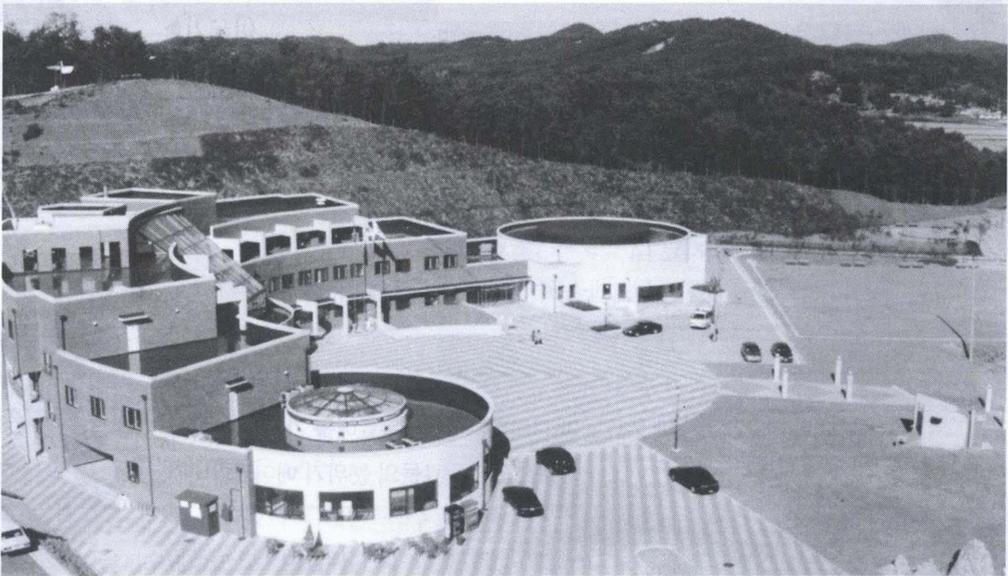


조재환▶

막내인만큼 젊고 패기 넘치는 젊은이랍니다.
누구 시집을 아가씨 없나요!

김포시 청소년수련원 탐방

우리고장의 명산인 월곶면 고막리 문수산 자락에 어머니 품속같이 포근하고 양지바른 곳에 멋진 조각 작품을 병풍삼아 이룩하게 위치한 청소년수련원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창의와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을 터득하고 진취적 기상으로 밝고 건강하게 자립정신을 고취시키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서 청소년수련원을 찾아가 보았다. (崔)



청소년 수련원에서 하는일?



98년도에 건립된 청소년 수련원은 99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사단법인 경기청소년육성회에서 우리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 관 내외 청소년 52,683명이 수련활동에 참여했고 금년에는 재단법인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인 서울 YMCA에서 수련원 운영부문을 위탁받아 새로운 면모로 일신하며 21세기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폭넓은 사고와 체험을 위해 제 3의 수준높은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수련 대상은』누구인가?



초·중·고학생 중심의 학년수련회, 신입생수련회, 졸업수련회, 동계수련회, 간부수련회, 수학여행 등이 있고 대학생의 M.T, O.T 및 단체수련회 직장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수련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련 프로그램은?』

문화 감성활동으로 풍물놀이, 국궁 배우기, 택견, 영상교실등과 모험개척활동으로 모험놀이, 올빼미추적, 오리엔테어링, 산돌탐사활동 과학정보활동영역으로 로봇게임, 과학공작, 천체관측, 생태계조사, 환경오염 실태조사등과 자기개발활동, 공동체활동, 놀이문화활동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수련원의 시설 규모는?

면적은 대지 26,800평에 연건축면적 1,645평의 규모로서 연수시설로 대강당, 세미나실, 분임토의실과 체육시설로 눈썰매장, 실내체육관, 운동장, 간이체육시설, 등산코스등이 있고, 금년도에 실외수영장을 건립하여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며 숙박시설로 최대 600명 수용의 객실 38실을 보유하고 있고 문화시설로 16점이 설치된 조각공원, 야외공연장, 레포츠공원과 편의시설로 식당, 매점, 휴게실을 갖추고 있다.



청소년수련원의 구성은?

청소년수련원은 시청에서 관리하고 운영 프로그램은 YMCA에 위탁 하였으며, 현재인원은 시청 문화체육과 관리팀 6명과 서울 YMCA소속 직원 24명을 포함하여 30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기여를 위한 청소년수련원의 계획은?

우리시 청소년 문화의 메카로 발돋움 하기 위해 관내 시민 단체(청소년포함)의 수련 활동시에는 관외보다 20%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관내 학교에서 책가방 없는날등 특별활동의 장으로 필요시 저렴한 프로그램으로 다채로운 이용이 가능하며 봉사활동 요청시 조각공원 청결유지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이용안내 문의는?

서울 YMCA 홍보팀 : (031) 989-6700으로 전화 주십시오.

2차 김포 조각공원조성

청소년 수련원이 위치한 김포조각공원에 금년도에 2차로 조각작품을 제작 · 설치 합니다.

- 조성 시기 : 2001년 9월
- 작품수(추가) : 14점(국내작가 7, 국외작가 7)
- 작품 유형 : 구상작품 8점, 추상작품 6점

녹지과 이공희 주사님!!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녹지과 이공희



“산림행정 우수시로 선정된 성과는 김포시 직원들의 땀방울의 결과”라고 말하는 이주사님!!

보통 우리들은 성찰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며 또한 성실한 사람은 후덕하고, 후덕한 사람은 신중하며, 신중한 사람은 검소하며, 따라서 검소한 사람은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남을 위하여 마음을 쓰고 시간을 내 기꺼이 협동하는 마음가짐이 곧 헌신(獻身)임을 알고 있으며 이 마음은 곧 진정으로 봉사하는 마음이고 헌신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이것이 바로 봉사라고 일컫는다. 남의 일을 내 일로 여기는 마음을 길러야 함을 우리 누구나 알고 있다.

자신을 닦고 지켜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 그래서 우리직원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사는 분!!

‘집을 나오면 사회생활을 하는 시간은 공사이라고 생각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으며 ‘나는 매사에 헌신적(獻身的)인가?’를 항상 되묻곤 한다는 녹지과 이공희주사님!

이번 한울타리 편집실에서는 산림애호사상을 갖고 김포시의 수목과 임야 보호에 여념이 없이 바쁜 녹지과 청원경찰 이공희주사님의 하루를 스케치 해보았다.

(신경란 / sk14028@hanmir.com)

저녁이 아침! 아침이 점심! 점심이 저녁! 저녁이 아침!

☞ Deskmen과 함께 여는 아침이 즐겁다

- 출근은 아침8시! 맞벌이 부부로 아내는 화성군에 있는 전자회사에 다니느라 매일 지각이지만 이주사는 일찍 출근하는 편이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큰아들 등교시키라 정신이 없지만 학부모형이 된 뿌듯함에 아침이 즐겁다.

사무실에서 제일 처음하는 일은 컴퓨터를 ON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

deskmen에 적힌 오늘 추진할 업무와 계획된 일을 살펴보고 공익근무요원 출근을 신고 받고 산림보호 업무에 들어간다. 요즘은 산불비상 상황실 근무도 중요한 업무중 하나.

4월이 되면 산림 병해충 업무가 시작된다. 김포시에 모든 수목과 임야에 병해충을 방제하여 산림자원 개발과 공익적 기능에 기여하는 보람을 갖고 열심히 추진한다.

☞ 푸른숲 선도원 추진은 나의 일

- 전날 추진한 일들과 오늘 할 일에 대한 산림팀장님과 차석의 지시내용은 소중한 내 일이다. 개중에는 수첩에 MEMO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푸른숲 선도원이란 업무도 소중한 일인데 이 업무는 다소 생소하지만 쉽게 말하자면 초등학교생부터 고등학생 보이스카웃과 같이 학생들에

게 산림애호 사상과 실천적인 녹색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인데 낯설지만 이 업무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려고 깊은 애착과 긍지를 갖고 하나하나 챙기고 있다.

☞ 작년-김포시 산림행정 우수로 좋은 평가

- 작년에 산림행정 우수시로 김포시가 선정되었을 때 어느때보다도 일의 보람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산림분야에도 창의력을 개발하여 좋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늘 노력한다.

공익근무요원 13명을 같은 식구처럼 생각하고 함께 일을 하여 애착을 많이 갖고 있으며 그들과 일을 함께 할때마다 든직한 생각이 든다. 이분들도 산림행정에 공이 많은 사람들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 이주사의 직업관은 자신의 위치가 최전선이므로 최전선이 튼튼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상사를 존경하고 동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남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라는것을 한 시도 잊은적이 없다.

동료들과 함께 어찌다 석양배라도 기울일때면 업무중 신경질나고 짜증났던 일들을 허심탄회하게 토로하여 스트레스를 말끔히 해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내일을 시작한다.

빛바랜 사진첩에 얽힌 사연

말이 없어도 지루하거나 따분하지 않은 그런 사이는 정녕 좋은 사이일 것이다. 소리 내지 않더라도 넉넉하고 정결한 뜻을 넘나들 수 있으며 소리는 입 밖에 내지 않을 뿐 구슬처럼 영롱한 언어로 침묵속에 끊임없이 오갈 것이므로...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음에 슬퍼하지 않고 잠시라도 같이 있을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15년전 샌드위치 데이를 기대했던 우리는...

샌드위치 데이를 기대했던 우리는 심윤섭 소장님의 선진지 견학(지금의 벤치마킹)제이가 반가울 리 없었지만 의약품을 가까이하고 고품질의 약품을 주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국가적 사명감을 띠고 장소는 녹십자로....

엄격한 품질검사로 출시되는 생산과정 견학 후 회사 내 잔디밭에서 한컷.

여러 이유로 현직을 떠나시거나 고인이 되신 분들,

지금도 시민위해 봉사하시는 12분의 동료들...

그 때의 경험이 공직 생활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추억의 사진으로만 남음이 안타깝다. ...



보건소 황순미님



초등학교! 역시 최고야...

옹주물에서 고창미까지...

하루 1시간을 꼬박 걸어 통학했던 멀고 먼 학교길 산치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던 나는 엄한 아버님의 얼굴이 떠올라 배도 못 아팠던 말 잘듣는 착한 아이였던 것 같다.

돌이켜보면 지겹기도 했으려만 휴가온 친구와 찾은 곳은 초등학교 교정....

이 한 장의 사진이 인연이 되어

매월 만나는 반가운 모임이 되었다. ...



건설과 김진억님



좋은 날 활짝 웃을 걸

모든 상을 휩쓸어라!!!

19회 군민의 날 체육대회시 떨어진 박용재 면장님의 야심찬 특명.

대명포구의 고기잡이배를 앞세운 입장으로 대곶면이 입장상을 수상하자 응원을 맡았던 나는 응원상 못 탈까봐 사력을 다한 날이었다.

결과요?

1위요, 정말 1위라니까요

대곶면이 종합우승했다니까요.. 그 시절엔.



허가와 김진화님



참 좋았었지...

청내에서조차 자동차가 귀하던 시절, 사회과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읍·면 회계 담당자기 모였다.

그 시절의 회계담당자, 정~말 좋았지

자비를 들어가며 부산으로의 2박3일간 여행겸 출장을 가서 자동차를 배경으로 찍을까하다가 너무 촌티 난다고 태종대에서...

이름도 기억나지 않고 에어컨도 없는 차였지만

그래도 우리 기분은 최고였다구요.

<차 이름이 뭐였을까? 같이 찍으신 분들 기억하시면 알려주세요. 후사할께요>..



시민과 이강욱님



자기세계 속에 스타일을 추구하는 남자

김포3동장 임종광

봄이 오는 소리와 함께 개구리가 폴짝 뛰어 오른다는 경칩이 지나고 여전히 히뿌연 황사로 삼미만상이 잔뜩 찌푸려 있었던 어느날 오후에 한올타리 일곱 번째 베스트드레서의 주인공인 김포3동장님을 방문했는데... 동장님실의 철 이른 활짝 핀 철쭉이 낯선 이방인을 반기듯 수줍게 피어 있었고 그 너머로 잔잔한 미소로 맞이해 주시는 임종광동장의 모습이 스크린 되었다.

따뜻한 미소와 넉넉한 마음씀씀이로 직원들을 편하게 한다는 동장님의 한 견에 옷 잘 입는다는 색다른 이미지에 당시자도 화들짝 놀란 듯 의아해하는 가운데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대화의 물꼬를 텄다.

(유재령 / jeremin@kebi.net)

HIS FAVORITE THINGS~~

^.. 옷 잘 입는다고 소문 듣고 왔는데요?

- 아닐걸요. 언젠가 핸드에 베스트드레서 추천시 민방위 팀장님이신 중선이형을 칭찬했더니 형님이 나한테 리플하신거예요. 사실, 말이 나왔으니 말이 지 우리시에서 옷 잘 입으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잖아요. 옷 잘 입어서라기보다 중선이형한테 가끔 이순신꼬냇(소주)잘 대접해주어서 그런거 같군요. 어쨌든 고맙군요.

^.. 았튼 축하드립니다.

동장님 오늘 패션 좋으신데요

- 과찬의 말씀. 패션이라기보다 저와 접하시는 모든 분들과 쉽게 어울리고 혐오스럽음 주지 않도록 편하게 몸가짐을 하려 하는 편이거든요. 공무원이란 직업이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보니 나 위주가 아닌 제 3자의 입장에서 자기관리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로부터 행색은 시원치 않아도 의관만큼은 목숨처럼 곱게 사려옴은 내가 아닌 상대방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볼 수 있겠



지요. 어쩌면 과거와 오늘의 연장선상에서 깨끗한 마음이 내면(內面)이라면, 의관은 확실히 보이는 자기자신의 상품화라고 생각합니다.

^.. ‘옷이 날개. 옷 잘 입는 사람이 다른 것도 잘한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평소에 동장님의 패션개념이 궁금하군요.

- 개념이라고는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 드린 데로 그냥 편하게 입으려하지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5년만에 초교동창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옷을 입어야할지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정장 스타일은 공무원이라는 틀에 박힌 이미지가 오랫동안 만난 자리를 검색시킬 우려가 있고, 편히 입자니 사실 마땅이 차려 입을 옷이 자신 없고. 그래서 생각다 못해 속은 스포티하고 겉은 양복으로 정성껏 치장(?)하고 나갔는데 그 모임에서 인상이 괜찮았나 봅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연락 오는 친구들이 그때 옷 입은 얘기를 하곤 합니다..

^.. 주로 어떤 스타일을 즐겨서 입으시는지요.

- 정장차림을 즐깁니다. 가끔 주말에 가벼운 노타이에 계절색 티를 받쳐 입어 변화를 주긴 하는데 별로예요.

^.. 멋을 아는 남자의 기본은 옷맵시라던데..이상적인 패션관은....

- 사실, 바바리 코트에 스카프나 목도리 하나만으로도 보기 좋은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패션이 체격이나 그 사람의 행동여하에 따라 그 은은한 매력이 풍기듯이 '옷 잘 입고 매너 좋은 사람'을 지향합니다.

^.. 옷은 어떻게 구입하고 코디는?

- 코디랄것까지 있겠습니까마는 집사람이 챙겨 주는 데로 입지요. 구입은 아마 계절별로 장만하는것 같은데 편하고 경제적인 면을 고려합니다. 주로 칼라링한 옷을 좋아하는 편이지요.

^.. 지난해 자랑스런공무원상을 수상하고 승진도 하신 걸로 아는데 그게 다 옷 잘 입는 덕을 보신건 아닌지요..

- 부족한 면을 조금씩 채워주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값어치가 나가야 겠지요. 아마 더 잘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울타리 지면을 통해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옷은 마음의 천사' 라고들 합니다. 잘 입고 못 입을 때나 자기 자신의 개성과 멋을 어떻게 표현하는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싼 옷을 입었다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돋보이지 않듯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표출하고 격에 맞는 옷이야말로 임금님귀 당나귀 아닐까합니다.

^.. 이제 완전한 봄이지요. 이 봄에 어울리는 남성복을 코디 하신다면, 또 입고 싶으신 스타일이 있다면 '한울타리' 애독자들에게 소개좀 해주세요.

- 그 정도까지 거창스러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건 분명 아시죠? 하지만 굳이 한마디하라면 저는 봄의 화신이 주는 옅은 하늘색계통의 정장을 제안하고 싶군요. 가벼운 소재의 옷감이 주는 하늘거림과 양복의 간편함과 계절감각을 느끼게 하는 이런 류의 의상은 분명 자신의 만족과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별다섯은 될 것입니다.

^.. 다음 베스트드레서 여덟번째 주인공을 릴레이 하신다면.

- 민원창구 근무요원으로서 늘 밝은모습과 정리된 스타일의 의상이 보기좋은 시민과 '이경석 팀장님'을 다음호의 베스트 드레서로 추천합니다.

“다정한 오누이처럼 살아가는 우리 부부의 알콩달콩 이야기”

행정과 박종대 + 시민과 정명희 부부



겨울 내내 잔뜩 쌓였던 눈도 이젠 다 녹아버리고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 온 세상엔 봄 꽃들이 장식하고 있다. 이들 부부의 모습도 세상을 장식한 봄꽃처럼 파릇파릇하다.

그들의 만남도 지금 같은 화사한 봄이었을까?

이들이 처음 feel(?)을 느낀건 시골가던 길에 기차내에서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하면서라고 한다. 그때 느낀 feel(?)이 이어져서 결혼까지 골인하는 데에는 남모르는 고충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고충은 청내커플들의 공통적인 고충이 아닌가한다.

(이주연 / 05happy@kg21.net)

청내 커플만큼 남의 이목에 신경이 쓰여서 김포를 벗어나 아는사람들이 없는 서울 화곡동이 이들의 데이트장소!

서울까지 가서 한 데이트니까 뭔가 특별한 데이트를 했을 것 같지만 그냥 평범한 데이트였다고 한다.

박종대씨가 바라보는 정명희씨는...

‘너무 착한게 흠이지만, 저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점이 좋아요.’

정명희씨가 바라보는 박종대씨는...

‘집안일 잘 도와주고 이해심도 많고 착해서 좋아요.’

명희씨가 밥하면 종대씨가 빨래하고, 명희씨가 설거지하면 종대씨가 걸래질하며 서로서로 도와주고 이해하며 착하게만 살아가는 이들 부부는 신세대 부부이기는 하지만 툭툭 튀기보다는 평범하고 소박하다.

결혼해서 좋은 점은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점은 아침에 같이 출근할 수 있다는 점, 풍무동 신안아파트에서 시청까지는 짧은 거리이지만 함께 출근 할때의 상쾌함은 “아! 결

혼 참 잘했다.” 감탄사가 나올 정도라고 한다.

며칠전 이들 부부에게는 정말로 큰 변화가 생겼는데 이들 부부에게 엄마! 아빠! 라는 이름을 달아준 공주님이 탄생한 일이다.(아직 아이의 이름을 못 지었는데 혹시 좋은 이름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행복이 나에게만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서 퍼져나가는 행복이 주변사람들의 입가에 미소짓게 한다.

『괴테의 작품 중 파우스트가 영혼을 팔고 자기가 영원히 머물고 싶은 순간에 대고 “너 아름답구나 멈춰라”라고 외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다름 아닌 모든 사람들이 땀흘려 일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디다. 저희들도 역경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면서 보람을 느끼죠! 라고 고백하는 이들 부부의 열심히 사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인다.』

두분의 새아기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정명희씨! 산후조리 잘하시고,
박종대씨! 명희씨 잘 보살펴주세요.

두분의 가정에 지금의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근아빠!

늘 정직하고 겸손한 당신은 최고의 면장님이 되실 겁니다.



△늦동이 막내아들 동근이를 보면 저절로 힘이 난다는 대곶면장님!!!
 하늘바람 불어오는 화사한 봄날 면장님의 가정에는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이영호 대곶면장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마흔이 넘어 고생 끝에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막동이 동근이가 태어나면서 우리 가정엔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스물 아홉해를 같이 살아도 여전히 친구 같고 애인 같은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띄우는 편지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대곶면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등 면장님이 되시리라 믿어요. 【박명희kp2000@kg21.net】

사랑하는 동근아빠에게...

우리집 작은 정원엔 어느새 파스한 봄기운으로 가득합니다. 아직 바람끝이 매섭기는 하지 힘들었지만 저에게나 우리가정에는 너무나 좋은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89세 되신 아버님도 아직까지 건강하시고 우리 큰딸이 시집을 가 예쁜 손녀딸을 안겨주었잖아요. 또 무엇보다도 당신이 사무관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대꽃면장님으로 승진하셨으니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이게 다 당신덕분인 것 같아요, 늘 정직하고 겸손해 하면서도 주위에 불우한 이웃을 보면 그냥 못 넘어가는 당신의 그런 성품이 우리가정에 행운을 가져왔겠지요. 그동안 힘들었던 일 다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좋은일만 생각하세요. 철부지 우리 아들... 이제 갓 초등학교 2학년인 우리 아들이 커서 지금의 당신 모습을 보면 너무나 자랑스러워 할겁니다. 그리고 늘 친팔처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님께도 감사드려요. 시집와서 지금까지 살다보니 미운정 고운정 다들어 아버님께서 “애, 애미야”하고 부르시는 말 한마디가 이젠 너무 익숙해 시아버님이라기 보다는 친정아버님처럼 느껴지니 말이에요. 항상 당신 출근할때면 연로하신 연세에도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게” 하시며 배웅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이 퇴근해서 늦게 오더라도 “아범, 잘 다녀오셨나” 반겨주시잖아요.

올 겨울은 유난히 많이 내린 눈 때문에 밤 낮없이 재설작업에 매달리는 당신이 걱정되기도 했고, 연일 산적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했지만 그래도 힘들어하지 않고 허허 웃으시면서 오히려 “당신 고생이 많아 “ 위로해 주는 당신이 얼마나 믿음직 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은 며칠 남지 않은 시민의 날 행사 준비로 많이 바쁘시지요? 시 승격이후 처음 갖는 큰 행사라 저도 기대가 크네요. 많은 대꽃면 주민들이 하나되어 당신과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으면 합니다.

동근아빠! 이제 제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님과 당신 그리고 우리 다섯 공주님과 하나뿐인 왕자님 모두 모두 항상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장님 !!! 앞으로 더욱더 대꽃면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성실한 일등 면장님이 되시리라 믿어요. 햇볕이 따뜻하기는 하지만 아직 꽃샘추위로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그럼 이만 줄일게요.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가 ...

PS

이번 주말에는 당신과 모처럼 다정하게 영화 한편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요. 면장님 되시기 전에는 우리 주말이면 가끔씩 영화도 보고 드라이브도 하면서 낭만을 즐기기도 했는데 요즘은 너무 바빠 그럴 짬내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눈부신 태양빛속에 아름다운 봄을 그냥 보낼 순 없잖아요.

공무원 성과급제의 명암

정 부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공무원 직무 성과급제'는 4급 이하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별 성과를 토대로 3개 등급으로 나뉘어 연간 1회 성과 상여금 기준 호봉표에 따라 월급여액의 150%, 100%, 50%의 상여금을 차등 지원하게 된다. 성과급제도는 그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이해의 폭이 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무원 당사자들에게는 문제적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평 무사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으나, 또 한국적 행정문화에 과연 맞는 제도냐 하는 기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새 제도의 도입에 앞서 이의 시행을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했느냐도 문제거리이다.

이 같은 점에서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는 다양한 불만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예컨대 교육공무원들은 교총 전교조 한교조 할 것 없이 성과급제의 도입을 거부하고, 지자체에서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고심하는 분위기다. 재정 상태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예상돼 이터다간 지자체 간 갈등이 증폭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현상은 공무원 사회에서의 자유경쟁 체제 도입이 민간기업의 연봉제의 경우처럼 과연 제대로 정착 할지에 대한 우려감을 낳고 있다.

따라서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아무리 바람직한 제도라도 당해 사회의 성격에 걸맞지 않을 경우 실패할 가능성에 유념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교육공무원들이 특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교사 개인의 능력을 일률적 일회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교수 및 지도 활동 등이 하루 아침에 일정한 수치로 계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현실성과 관련된다. 이런 관점은 비단 교육공무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보다 조직

활동에 비중이 더 큰 일반행정직이나 군 소방공무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제도의 도입은 매우 위험스런 일면이 없지 않고, 그만큼 일정한 원칙과 운영의 묘를 살려야 성공적 정착이 가능하다. 그러자면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과연 철저한 준비 뒤의 시행인지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공무원들의 능동적 창의력을 유도한다는 취지에 값하자면 예산 부족과 선정 잦대의 시비가 논란 거리로 등장하지 말았어야 했다. 성과급제 도입에 따른 공직사회의 명암을 충분히 검토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확실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예산편성과 평가방식조차 정하지 못하는 오늘의 현상이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럼에도 인사위는 이제서야 각 부처별로 인사행정담당관이라는 직책을 신설하여 실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겠다 하니 문제 아닌가. 새 제도의 도입이 탁상행정이란 비판을 받지 않도록 더욱 치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한 뒤에 시행해야겠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대상자 선정을 둘러싼 직원간의 내부갈등을 우려해 난색을 표명하는 등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인 선정기준 마련이 힘들어 성과급제가 차치단체장이나 상급자의 충성도에 의해 결정되는 또 다른 '윗선출서기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부서별 업무특성상 객관성과 명확성을 갖춘 평가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시행시 부서간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금년 2월안에 지급해야하는 성과급제 시행을 직원간의 위화감과 탈락된 직원들의 반발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시의 주가는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시가 전국 1백65개 자치단체중 주식을 상장한다면 과연 얼마나 될까?

또한 31개 경기도 시·군에서는 주가가 얼마 되고 순위는 어떻게 될까? 우리시의 주가는 2001. 3. 11일 현재 16,330원으로 1,480원 상한가를 쳤지만 경기도 시·군중에서는 25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165개 자치단체 중에서는 120위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주 저조한 가격이지만 지난달에는 경기도 1위를 차지했고 전국에서는 40위권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현재 가장 주가가 비싼 자치단체는 서울시 1주 가격이 86,100원이고 가장 주가가 낮은 자치단체는 전북 진안군이 14,000원으로 꼴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구요?

전국 165개 광역시도와 시군들의 주식을 사고 팔고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도시증권거래 (<http://www.citystock.net>)가 운영되고 있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진짜 현금이 오고가는 증권거래소인가요?

물론 아닙니다. 가상 사이버 머니로 주식을 사고 팔고 있습니다. 사이버 머니는 사이트에 무료로 등록만 하거나 하면 종잣돈으로 200만원을 회원계좌에 입금시켜 줍니다. 이 사이버 머니로 전국 자치단체 주식을 거래하면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회원들에게는 '명예의 전당' 입성, 명암무료제작 서비스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회원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자치단체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 이미지를 높이고 시군정의 홍보와,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각종 수상한 실적, 특수시책, 대형 프로젝트등의 자료를 매일 사이트에 홍보하여 '호재'를 만들어가면서 주가를 높이고 있고, 또한 언론 등에 보도된 각종 문제점들도 네티즌들이 올려 '악재'를 만들어 해당 자치단체의 주가를 하한가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운영방식이 실제 일반 인터넷 증권거래소의 운영과 같기 때문에 더욱 흥미를 유발하고 있으며, 증권거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즐기면서 무료로 기초적인 증권 지식과 거래방식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점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머니를 모두 투자로 손실했을 경우에도 사이버머니 대출 등 각종 가상 금융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네티즌들이 출마하여 가상으로 시장·군수를 선출하는 이색 이벤트행사도 진행중에 있으며, 많은 네티즌들이 자신들이 살고있는 자치단체의 주가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흥미롭기도 합니다.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김포시 주가를 올려 전국에 김포시의 위상을 한번 높이 올려 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글 박)

고사성어(古事成語) 속의 역사(楚와 漢의 전쟁)



농업기술센터 양승호(splion@hanmail.net)

중 국 고사성어는 짧은 말속에 긴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들이 일상에서 빈번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사성어가 대부분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역사에 대한 상식이 없이 단순히 한자의 뜻만 가지고는 그 뜻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삼국(魏, 蜀, 吳)의 쟁패와 더불어 중국역사상 가장 많은 고사성어가 만들어진 초(楚), 한(漢)의 전쟁에 관련된 고사성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족지세(鼎足之勢)

이 말은 흔히 사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문의 정치면 같은 곳에 간혹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그런 기사를 읽으실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정(鼎)은 고대 중국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던 발이 셋 달린 대형 솥을 말합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정(鼎)의 재료, 크기, 숫자로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흔히 구정천자(九鼎天子)라 하여 천자는 9개, 제후는 7개 하는 식으로 신분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정(鼎)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정족지세(鼎足之勢)는 '비슷한 세 세력이 성립하여 서로 우열을 다툰다'는 뜻을 지닌 말로 다음의 고사에서 유래합니다.

진(秦)나라가 멸망하고 초(楚)와 한(漢)이 천하의 패권을 다툰 때의 일입니다. 한나라의 장수였던 한신(韓信)이 제(齊)나라를 평정하자 그의 부하 이좌거(李

左車)가 아예 제나라를 기반으로 독립하여 초(楚), 한(漢)과 대등한 관계에 서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이좌거는 천하가 세 개의 세력으로 나누어지는 모습을 하늘에 제사지낼 때 사용하는 솥인 정(鼎)의 다리에 비유하여 정족지세(鼎足之勢)란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천하가 비슷한 세력을 지닌 세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면 어느 한 나라의 힘이 강대해져도 두 개의 나라가 힘을 합치면 하나의 강대한 나라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신은 한나라와의 의리를 내세우며 이좌거의 권유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신은 후일 초나라를 멸망시킨 후 모함을 받아 처형(여기서 토사구팽(死狗烹)이라는 말이 유래함)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신은 처형을 당하며 이좌거의 권유를 거절한 것을 크게 후회하였습니다.

후일 제갈량(諸葛亮)이 유비(劉備)에게 천하를 위(魏), 촉(蜀), 오(吳)의 삼국으로 정립(鼎立)하는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를 진언하였는데 이 계책은 바로 정족지세(鼎足之勢)의 고사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2. 사면초가(四面楚歌)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유래는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라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해하(垓下)의 전투에서 한(漢)나라 군대에 포위된 초(楚)나라 병사들은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래에 두고 온 고향생각을 떠올리고 밤을 틈타 도망을 했습니다. 병사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본 초패왕(楚霸王) 항우(項羽)는 형세가 이미 기울어졌음을 깨닫고 마지막 연회를 마련하고 비통한 심정에 다음과 같은 유명한 시를 지었습니다.

“힘은 산을 뽑고 의기는 세상을 덮지만 [力拔山兮氣蓋世(역발산혜기개세)] 때는 불리하고 추(항우의 애마 오추마)는 가지 않누나 [時不利兮騶不逝(시불리혜추불서)] 추가 가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은고 [騶不逝兮可奈何(추불서혜가내하)] 우야 우야 그대를 어찌할 거나 [虞兮虞兮奈若何(우혜우혜내약하)]” 이 시를 들은 우희(虞姬 : 항우의 부인)는 항우가 포위망을 뚫고 철수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하여 자결을 하였습니다. 우희를 잃은 항우도 남은 부하 800명을 이끌고 탈출을 꾀하다 한신(韓信)의 십면매복(十面埋伏 : 한신은 군대를 여러 갈래로 갈라 요소요소에 매복시키고 산꼭대기에서 항우의 군대가 도망가는 방향으로 깃발을 흔들어 그 방향에 있는 부대가 퇴로를 막도록 하였음)에 걸려 양자강(揚子江) 북쪽기슭 오강(烏江)에서 끝내 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희와 항우의 사랑은 후세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어 ‘패왕별희(霸王別姬)’란 이름의 경극(京劇)으로 만들어졌고, 이 경극을 소재로 하여 '93년 첸카이저 감독이 만든 영화 ‘패왕별희(주연 : 장국영, 장풍의, 공리)’는 칸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 천려일실(千慮一失)

천 가지 생각 가운데 한 가지 실책이란 뜻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쯤은 실책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나라 고조의 명에 따라 대군을 이끌고, 회음후 한

신(韓信)이조(趙)나라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 때, 광무군(廣武君) 이좌거(李左車)는 성안군(城安君)에게 3만 군대를 자기에게 보내주면 한신이 오게 될 좁은 길목을 끊겠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성안군(城安君)은 이좌거(李左車)의 말을 듣지 않고 한신의 군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크게 패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한신은 조나라를 쳐서 이기자 장병들에게 영을 내려 광무군 이좌거(李左車)를 죽이지 말고 산채로 잡아오는 사람에게는 천금의 상을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결국 이좌거는 포로가 되어 한신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한신(韓信)은 손수 포박을 풀어 준 뒤 상석에 앉히고 주연을 베풀어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의 천하 통일에 마지막 걸림돌로 남아 있는 연(燕), 제(齊)에 대한 공략책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좌거는 ‘패한 장수는 병법을 논하지 않는 법(敗軍將兵不語)’이라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한신이 재삼 정중히 청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들으니, ‘슬기로운 사람도 천 번 생각에 한 번의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천 번 생각하면 한 번은 맞을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치광이의 말도 성인은 가려서 듣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의 계책이 반드시 채용될만한 것은 못 되지만 그래도 충심껏 아뢰겠습니다. 그러니, 패장의 생각 가운데 하나라도 득책이 있으면 이만 다행이 없을까 합니다.” (臣聞智者千慮 必有一失 愚者千慮 必有一得 故曰 狂夫之言 聖人擇焉 顧恐臣計 未必足用 顧效愚忠)

이좌거는 한신으로 하여금 연나라와 제나라를 칠 생각을 하지 말고, 장병들을 쉬게 하라고 권했습니다. 이좌거는 후일 한신을 도와 조나라를 멸망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아 파서 누워있는 환자들, 그들을 방문하는 일이 바로 보건소에서 내가 맡은 일이다. 아침에 출근하면 그날 방문할 환자가 누구누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전화연락을 준다. 몇시쯤 방문하게 될 것인지... 내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의 대부분은 요즘 많이 늘고있는 뇌졸중(중풍) 환자와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된 젊은 환자들이다. 중풍환자들은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간호는 그분들 자녀분들의 몫이된다.

반면,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된 교통사고 환자들은 부모들이 간호를 맡게 된다. 언제 끝날지 끝을 알 수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처럼 환자도 보호자도 한줄기 희망의 빛조차 찾아보

기가 힘들다. 그래서 더 힘이드는 걸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얼굴은 미소를 띄고 있지만, 그 내용은 거의 죽음에 대한 것들이다. 그런 상황을 대할 때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다. 우리가 가는 목적은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고자 함인데, 환자들의 마음은 이미 삶을 포기한 상태.... 어서 더 나빠져 하루라도 빨리 죽고싶다고 할 땐 표정관리 또한 참 어렵다.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주어야 할지 나 또한 갑갑할 뿐이다. 단순한 위로의 말... 입에 발린말 같아 입에서 꺼내기조차 어렵다. 다만 힘없이 웃을 뿐...

그런 가운데에도 가끔씩 마음의 위로를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보건진료소에서 의뢰된 환자 한분을 한의사 선생님과 방문했다. 김포에서도 아주 시골, 컨테이너 박스를 집으로 삼고 사시는 분이였다. 혈압과 맥박을 측정해 보니 200/110으로 혈압이 높고, 맥박도 고르지 못한 상태였다. 의료보호 1종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앓아 오시면서도 궁핍한 살림에 병원가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였다. 뇌졸중이 진행중이어서 당장 병원에 입원해야 할 환자로, 한의사 선생님께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나는 관내병원을 알아보고 있었다. 원무과, 응급실등을 통해 입원을 허락받게 되었고, 두분이 병원까지 거동하기 불편하여 구급차까지 부탁하였다. 내일아침 입원하시겠다는 대답을 듣고도 약속을 다짐받고 집을 나왔다. 서둘러 마지막 환자집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한의사 선생님께 여쭙보았다. "저 할아버지 내일 병원 가실까요?", "가시면 우리가 한 생명을 구한거죠"라는 대답을 들으니, 그래도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새삼 보람이 느껴진다. 저녁 지는해를 보며 보건소에 들어왔을 때 이미 7시가 다 된 시각. 내일 할아버지께서 입원하셨는지 전화 한번 해봐야지...



김영주 / 보건소

문화의 **窓**

길을 잃음으로 얻는 지혜

때로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하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특별한 무엇인가를 해주지 않더라도 언제나 나를 바라보며 믿어주는 그것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

아주 긴 시간 전에 난 파랑새를 찾듯 그 보이지 않는 실체를 찾고자 나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규정을 했었죠. 나를 행복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그 무엇인가는 굳이 드러내지 않더라도 항상 밝은 빛을 내는 존재일 것이라고

그래서 난 언제나 일등성을 찾아 헤맸었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바른 길이라 맹신해 버린 때도 있었죠. 그 밝음이 자신을 위한 화려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고 너무도 굳게 믿어 버리는 우를 범하고 말한거죠.

어느 날, 길을 잃고 헤매이던 어느 날. 언제나 그 자리에서 수줍은 빛을 발하는 별을 보았습니다. 밤 여행자들이 길을 잃어 헤매이지 않도록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길을 인도하는 2등성 북극성. 드디어 내 인생의 북극성을 찾아낸 것입니다. 앞으로 길을 잃을 위험은 없을 것입니다. 내 앞을 지켜보아주고 날 믿어주는 북극성은 앞으로도 나와 함께 영원할 것이니까요.

요즘은 살 맛이 납니다. 세상살이가 재미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파랑새도 멀리 있는 환상이 아닙니다.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 보이는 곳에 나의 행복이 있다는 것. 그것이 길을 잃고 헤매이다 얻은 결론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고 행복하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인생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것.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가장 밝은 빛을 내는 별이 북극성이 아님에도 많은 여행자들이 그 북극성을 바라보며 길을 잃지 않고 여행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나에게도 북극성이 있습니다.

그 별은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밝은 빛을 내고, 날 미소짓게 하는 가장 소중한 별입니다.



허운 / 복지과

문화의 **窓**

(윤선영의 영어한마디)

<< brush up = review >>

■ brush up (on) phrasal verb

to improve your knowledge of (something already learned but partly forgotten)

※brush의 자체의 뜻은 ‘붓(솔)질하다’ 입니다.

전치사 up ‘완전히 끝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give up : 다 주어버리고 끝내다, 즉 ‘포기하다’ 는 뜻을 나타내지요.

Time's up : 시간이 완전히 끝나다, 즉 시간이 다 되었다라는 의미이죠.

보통 빗질하고나서 마무리로 완벽하게 하기위해서 한 번 더 빗질하고 끝내죠,

즉 그런 뜻에서 재점검하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거죠.

e.g) I thought I'd brush up on my French before going to Paris

(영어 유머)

<< I hid his teeth ! >>

■ Two elderly ladies were discussing their husbands over tea.

"I wish that my Elmer would stop biting his nails.

He makes me extremely nervous."

"My Billy used to do the same thing," the other woman replied.

"But I broke him of the habit."

"How?"

"I hid his teeth."

(해설)

두 할머니가 차를 마시면서 자기 남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난 우리 남편 엘머가 손톱 물어 뜯는 버릇을 고쳤으면 좋겠어.

그는 나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어.”

다른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 남편 빌리도 예전엔 그랬었지. 근데 내가 그 버릇을 고쳤지.”

“어떻게?”

“남편의 틀니를 감추어 버렸지.”



(윤선영/soya7681@hanmail.net)



편집후기

생일을 축하합니다.

김포시 동·면사무소 중에서 개나리꽃이 가장 먼저 핀 곳은 아마 고촌면 사무소가 아닐까요?

2월 중순, 어디선가 꺾어 오신 개나리 가지를 예쁜 꽃병에 담아 햇빛 가득드룬 사무실에 놓으시는 총무 팀장님. 매일매일 정성껏 가꾸시더니 언제부턴가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 났습니다.

팀장님의 꽃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처럼 지금은 만개한 개나리꽃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총무팀장님의 다음목표는 목련꽃을 활짝 피우시는 거라고 하시는데... 면사무소 사무실을 화사하게 장식할 목련꽃,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황사현상이 점점 심해지지만, 그래도 화사한 꽃이 있고, 꽃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기에 봄은 참 아름답습니다.

- 이주연 -

지금 살아 느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하루입니다.

봄날 오후는 이렇게 창가에 앉아 봄 햇살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오늘은 살아 느낄 수 있는 행복 한자락을 환율타리 편집을 하며 만난 사람들 숨결에서 느껴봅니다.

- 이채영 -

편집에 참여해 주신 공무원들

최해왕, 박경애, 신경라, 임종광, 유재욱, 김충엽, 이주연, 심상연, 양승호, 유재경, 백혜연, 이의혜, 오은화, 이채영, 문원영, 황영숙, 정은희, 허문, 박혜경, 이종경, 박정우, 박명희(무순)

공보담당관실	이신경	4월 1일	여성회관	임상희	4월 13일
복지과	엄덕종	4월 1일	김포1동	홍현철	4월 14일
시민과	임동호	4월 1일	수도사업소	이한재	4월 14일
양촌면	조민규	4월 1일	월곶보건지소	김애경	4월 14일
월곶면	김형남	4월 1일	행정과	장윤석	4월 14일
행정과	이관호	4월 1일	행정과	손동휘	4월 15일
하성면	김금준	4월 2일	세정과	안선영	4월 16일
농업기술센터	조아영	4월 2일	통진면	김해성	4월 17일
허가과	임산영	4월 3일	수도사업소	이용표	4월 17일
농업기술센터	고재동	4월 4일	통진면	권혁철	4월 17일
건설과	문 정	4월 5일	석탄리진료소	김광숙	4월 18일
대곶면	이정환	4월 5일	수도사업소	임종배	4월 18일
고촌면	홍중표	4월 6일	건설과	이종환	4월 19일
여성회관	박경애	4월 6일	건설과	조재환	4월 19일
환경과	조희환	4월 6일	건설과	김영대	4월 21일
세정과	김인섭	4월 7일	녹지과	두철연	4월 21일
시민과	이희연	4월 7일	양촌면	유정수	4월 21일
김포3동	최명순	4월 8일	양촌면	이진관	4월 22일
녹지과	권오철	4월 8일	통진면	황미라	4월 22일
시민과	권호섭	4월 8일	보건소	황순미	4월 23일
농정과	함진형	4월 8일	세정과	장일남	4월 23일
문화체육과	채광수	4월 9일	양촌면	이돈수	4월 23일
세정과	김지숙	4월 9일	김포2동	최재호	4월 24일
세정과	민윤주	4월 9일	수도사업소	이성용	4월 25일
시민과	김정애	4월 9일	수도사업소	천호성	4월 25일
행정과	안교형	4월 9일	교통과	이상백	4월 27일
의회사무과	황규만	4월 10일	시민과	김희경	4월 28일
주택과	유정수	4월 10일	차량등록	노금희	4월 28일
농업기술센터	김희경	4월 11일	고촌보건지소	최원례	4월 29일
종합운동장	이명옥	4월 11일	도시개발과	배춘영	4월 29일
건설과	한규중	4월 12일	문화체육과	주현주	4월 29일
건설과	김세환	4월 13일	행정과	두춘연	4월 29일
김포1동	김경순	4월 13일	건설과	황명하	4월 29일
보건소	이석창	4월 13일	통진면	황금용	4월 30일
시민과	이호재	4월 13일			

'2000년 도

전화 친절도 최우수부서

복·지·과

